

毛澤東 時代의 中國의 經濟開發戰略

朴 貞 東*

< 目 次 >

- I. 머리말
- II. 低開發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의
農村, 都市 2部門 經濟發展 戰略
- III. 改革開放以前의 經濟實績
- IV. 經濟運營의 停滯를 誘發한 要因
- V. 맺음말

I. 머리말

1978년 12월의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以後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크게 나누면 다음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주로 농촌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체제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개혁의 중점은 各戶請負責任制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는 1984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인데 개혁의 중점은 도시의 경제체제개혁이었다. 도시 경제체제개혁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中國共產黨 第12期 3中全會(1984년 10월)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계획경제체제의 주된 장애요인으로서 행정기관과 기업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지나치다는 것, 상품생산, 가치법칙, 시장메카니즘의 역할이 경시되었던 것, 분배면에 있어서의 심한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¹⁾ 이러한 諸 장애요인의 결과 기업은 자주권을 상실하고 사회주의경제도 활기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의 개혁의 과제로서 1)기업에 자주권을 부여(기업의 소유권

* 中國 北京大學校 經濟學院

1) 『北京周報』, 1984年 44號

과 경영권의 분리에 의한 행정기관과 기업의 직무분리) 2)가격체계의 합리화 3)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가치법칙의 운영 등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1986년 12월 第6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18回 會議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 企業破產法(試行)가 채택되어 기업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의 14년간의 경제체제개혁은 종래의 경직된 계획경제체제하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인해 농공업의 발전, 시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경제체제 개혁이 중국경제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임과 동시에 그것에 의해 중국경제가 크게 발전을 이룩해 왔고 또한 이러한 경제체제개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1949년 新中國성립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속되어온 舊經濟體制는 과연 무엇이었느냐하는 것이다. 즉, 구경제체제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국은 과연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시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실패로 끝나버렸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978년 이후 실시된 경제체제 개혁의 배경,근거를 둘러싼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 경제 정책을 舊政策과의 대비속에서 재검토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II. 低開發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農村, 都市 2部門 經濟發展 戰略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제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본 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는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1949년 10월 당시 5억 4천만의 인구와 960만평방km의 광대한 국토면적을 가진 大國 中國은 혁명에 의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新中國이 극도로 낙후된 생산력 수준을 舊體制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낙후된 수준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재편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체제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혁명 이후, 사회주의체제속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중국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비교경제체제론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비교경제체제론은 시장경제 혹은 사회적 분업이 발달된 소련, 東歐경제를 경험적 토대로 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과제인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기능의 비교(즉 시장적 배분과 계획적 배분을 대치시켜 논하는 것) 혹은 사회주의 경제의 각종 형태간의(집권적 사회주의, 분권적 사회주의)비교를 논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는 계획적 배분이 복잡한 제도요인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다. 즉 비교경제체제론만으로써는 저개발의 시장 경제와 행정제도, 그것과 병행해서 존재하는 관습경제 등의 움직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저개발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농촌·도시 2부문 경제발전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Lewis의 2중경제형개발모델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필자 나름대로 수정한 것이다.²⁾

1. 모델의 諸假定

이 모델은 다음의 논의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 물질 생산수단의 公有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의 公有는 全人民所有와 集團所有를 의미한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경제적 선택의 주요부분이 중앙에서 실시되고 하부기관에는 집행기능만이 부여된다. 즉, 각종투자의 내용, 노동력, 기계, 원재료의 공급에서부터 작업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항목이 기업의 상부기관에서 결정되고 기업은 그 임무의 수행만 하도록 되어 있다.

2) 一國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農村部門(rural sector)’과 근대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都市部門(urban sector)’로 구성되어 있다.³⁾ 그리고 농촌, 도시 양부문 모두 실업의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노

2) 필자가 본고에서 A.W. Lewis의 이중경제개발모델을 응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농촌 과잉인구를 안고 있는 저개발국의 경제개발분석틀로서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저개발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계획적 자원배분, 노동력 이동의 규제, 분배임금 등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제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중국에 있어서 도시, 농촌에 관한 행정상의 개념으로서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市·鎮人口이고 농촌에 해당하는 것이 鄉村人口이다. 市鎮人口라는 것은 범위구역내의 총인구를 나타내고 鄉村人口라는 것은 縣의 인구를 가르킨다. 그러나 鎮의 인구는 鄉村人

동력의 불완전이용이라는 문제는 존재한다.⁴⁾

3) 노동력배분에 관해서는 도시부분의 과잉고용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기 전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자의 이주를 규제한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이 공업부문보다 자본과 노동의 대체가 용의하기 때문이다.⁵⁾

4)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의 분배원칙(능력에 의해 일하고 노동에 의해 분배한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임금은 농촌, 도시 양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원이 생산한 총생산물 중에서의 축적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총분배분)을 구성원 각각의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것을 여기서는 '분배임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5) 축적분은 전부 재투자되는데 그 비율(농촌, 도시 양부분)은 국가의 투자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text{총재투자분}(T) = \text{농촌부분의 가중치}(\varepsilon_1) \times T + \text{도시부분의 가중치}(\varepsilon_2) \times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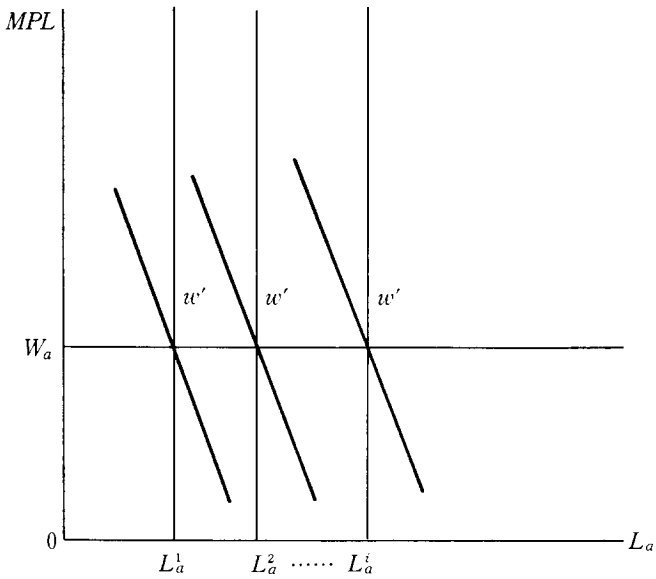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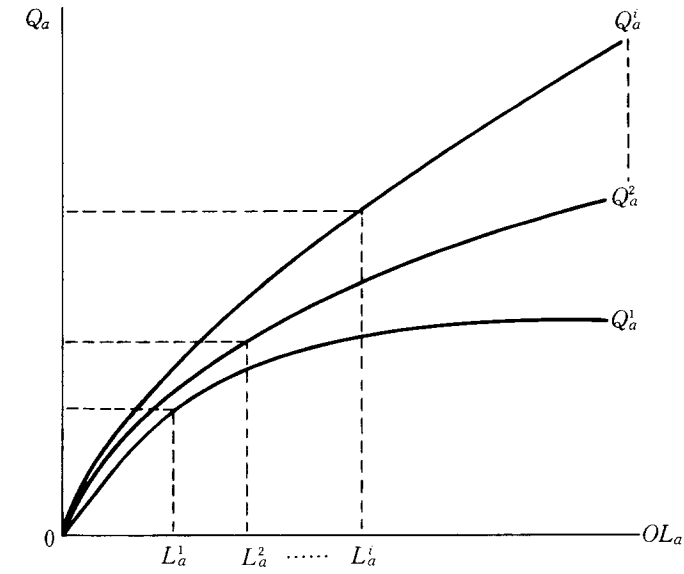
$$\varepsilon_1 + \varepsilon_2 = 1, 0 < \varepsilon_1 < 1, 0 < \varepsilon_2 < 1$$

6)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술수준이 일정하다. 여기에서 기술수준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각 생산기에 있어서의 적정 고용량(임금=한계노동생산력)때의 노동자 일인당의 자본, 노동의 비율이 일정함을 말한다.

11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鑛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① 鄉의 총인구가 3 萬人 이상으로 鄉政府소재지의 비농업인구가 총인구의 10% 이상.
- ② 鄉의 총인구가 2 萬人 이하로 비농업인구가 2 千人 이상.
- ③ 비농업인구 2 千人 이하라도 소수민족지구, 인구가 희박한 변경지구,山區, 소규모의 광공업지구, 小항만지구, 관광지 등의 중요지점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監-1987』中國統計出版社, p.130.

- 4) 노동력의 불완전 이용이라는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즉 신중국성립기에 중국은 적지 않은 실업자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들 실업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는 실업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시, 농촌 양부분 모두 필요 이상의 노동력을 과잉고용노동력이라는 형태로 흡수했다.
- 5)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규제를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이라는 호적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1953년의 식량통제와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대학진학, 군대, 결혼, 공무원 등의 극히 제한된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도시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힘입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비합법적인 노동력의 유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註：농촌부문의 각 시기의 적정노동투입량 $L_a^1, L_a^2 \dots L_a^i$
 각 시기의 산출량 $Q_a^1, Q_a^2 \dots Q_a^i$
 총 노동 투입량 OL_a
 산출량 Q_a

〈그림 1〉 農村部門의 擴大再生産 課程

2. 농촌·도시 各部門경제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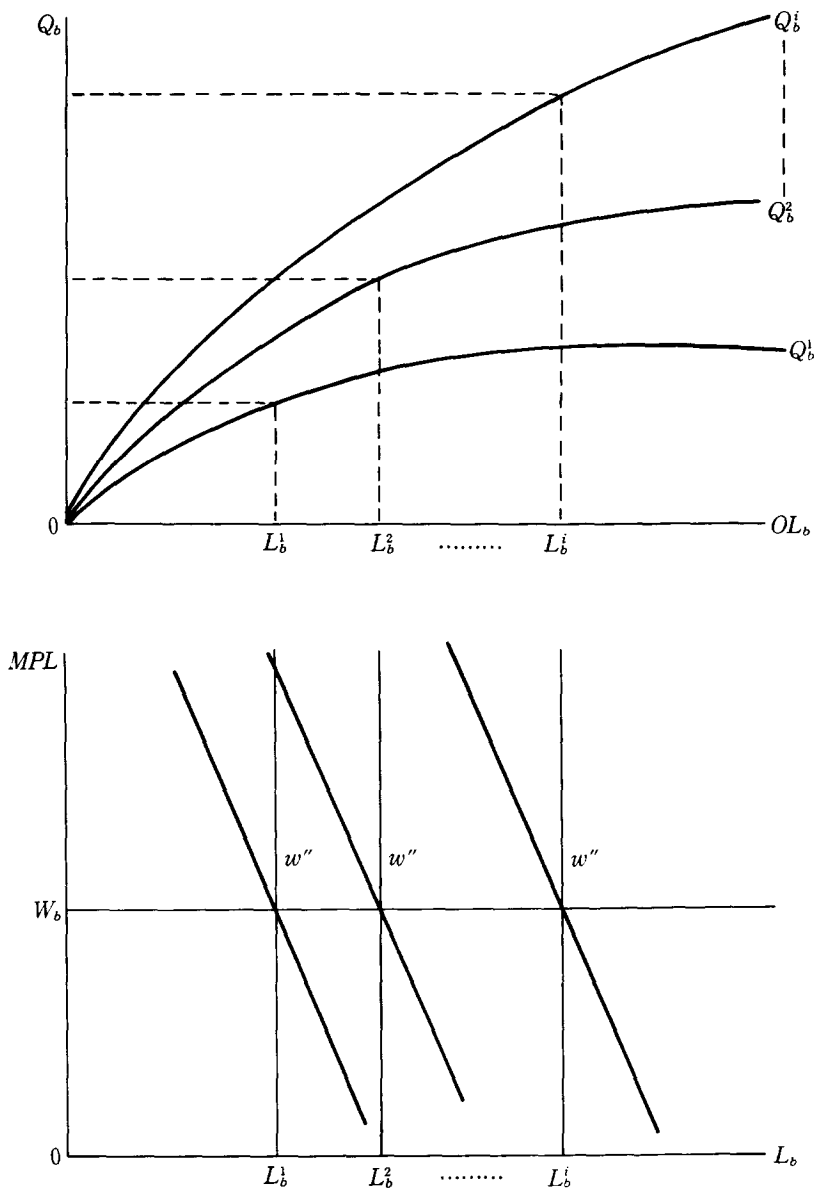
1) 농촌부분경제개발전략

<그림 1>은 농촌부분에 있어서의 확대재생산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어진 농지에 OL_a 의 노동력을 투입해 Q_a^1 의 총생산물을 수확한다고 하자. 이 때 한계노동생산성, 즉, 총생산물 곡선에의 접선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노동투입량은 L_a^1 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이론상으로는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고 그 이외의 노동력은 실업상태에 있다. 따라서 $OL_a - L_a^1$ 의 노동력은 한계노동생산성이 임금이하이기 때문에 실업인구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실업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즉, 한계노동생산성의 高低에 관계없이 전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OL_a 의 총노동력이 Q_a^1 의 총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OL_a - L_a^1$ 의 노동력은 취직은 하고 있지만 자본의 부족에 의해서 노동력이 불완전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과잉고용노동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과잉고용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생산물 가운데에서 가능한한 축척분을 늘려서(국가에서 정하는 「분배임금」(W_a)은 가능한한 줄이고), 그것을 次期の 생산확대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次期の 총생산물곡선을 Q_a^1 에서 Q_a^2 로 확대시킨다. 이러한 확대재생산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과잉고용노동력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도 이룩한다는 전략이다.

2) 도시부분경제발전전략

도시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요소는 자본(K)과 노동(L)이다. <그림 2>는 총노동력(OL_b)과 각 시기의 자본투입량($K_b^1, K_b^2, K_b^3 \dots$)을 결합시켰을 때의 총생산물곡선의 궤적 Q_b^1, Q_b^2, Q_b^3 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임금수준(W_b)도 농촌부분과 마찬가지로 「분배임금」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도시부분에 있어서도 농촌부분과 마찬가지로 과잉고용노동력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총생산물 가운데서 가능한한 축척분을 늘리려고 한다. 축척분은 차기 생산확대를 위한 잉여로서 사용되고 이러한 재투자에의해서 총생산물 곡선은 Q_b^1 에서 Q_b^2 로 상향이동한다.



註：도시부문의 각 시기의 적정노동투입량 $L_b^1, L_b^2 \dots L_b^i$
 각 시기의 산출량 $Q_b^1, Q_b^2 \dots Q_b^i$
 총 노동 투입량 OL_b
 산출량 Q_b

〈그림 2〉 都市部門의 擴大再生産 課程

3. 農村・都市 2部門 經濟發展 모델의 示唆點

上述의 모델은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다음과 같은 정책실시가 바람직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인구정책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밀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능가할 경우,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총분배분은 인구증가분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투자액은 줄어들고 성장율은 제한받게 된다.

2) 자본축적—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요소 가운데서도 자본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소비분은 가능한한 줄이고 축적분은 높이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성장패턴을 취하는 이유는 현재의 평균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분배를 장래에 구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생산분을 평등하게 분배해 전부 소비해버리기보다 현재의 생산분의 일부를 재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장래의 분배분이 현재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3) 생산방식—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도시・농촌 양부문 모두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생산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노동력 이동은 도시부문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내(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도시부문에서의 취직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력을 위한 식량도 농촌부문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노동력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킨다.⁶⁾ 그리고 이 시점에 도달하면 농촌에 있어서의 생산방식은 지금까지와 같은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생산확대가 아니고 기계를 이용한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비료,

6) 도시, 농촌에 있어서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농촌부문—농촌에 있어서 每期 투하자본(K_n^t)이 K_n^s (농촌부문에 있어서 과잉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에서의 투하자본량)가 되기까지는 $A_n(K_n^t$ 시점에서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가 B_n^t (농촌부문에 있어서 현실투하노동량에 의한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보다 크다. 과잉고용노동량이 없어지면 $K_n^t = K_n^s$, $A_n = B_n^s$ 로 된다.

도시부문—도시부문에 있어서 每期 투하자본과 K_n^s (도시부문에 있어서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時點에서의 투하자본량)가 같아지기까지는 A_n (도시부문에 있어서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에서의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가 B_n^t (도시부문에 있어서 현실투하노동량에 의한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보다 크다. $K_n^t = K_n^s$ 가 되면 $A_n = B_n^t = B_n^s$ (L_n 과 K_n^s 가 투자되었을 때의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의 관계가 성립. 여기서 도시, 농촌 양부문의 관계를 보게되면 도시부문에 있어서 과잉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A_n = B_n^t = B_n^s$)이 농촌부문보다 빨리 온다. 그것은 공업쪽이 농업보다 자본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약, 농업기계 등의 근대적 농업자본재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진보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촌, 도시 양부문 모두 과잉고용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도시부문에 있어서도 풍부한 노동력에 의거한 생산확대가 아니고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구조를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III. 改革・開放以前の 經濟實績

개혁, 개방이전의 중국의 경제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과잉고용노동력과 축적메카니즘의 마비이다.

1. 過剩雇傭勞動力的 問題

경제성장과 함께 취업기회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자연증가, 부인노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해 노동력의 상당한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통계연감에 의하면 1983년 현재, 10억 2,495만명의 총인구 가운데 취업가능인구는 6억3,024만명으로 추정된다. 취업가능인구 가운데 실제취업인구는 82.7%이다. 비취업인구 17.3%(1억 903만명)의 내역을 보면, 재학중의 학생이 18.14%, 재수생 1.01%, 주부 55.18%, 정년퇴직자(국영기업노동자 男 60歲, 女 55歲), 老齡퇴직자 7.1%, 직업알선을 기다리고 있는 得業青年 2.41%, 그 외 15.35%이다. 得業青年의 비율로 보면 중국에서의 실업문제가 여타국가보다 심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위장된 실업인구에 있다. 그러면 위장된 실업상태로 존재하는 과잉고용 노동력이 과연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한 정확한 대답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농촌지역에는 1~2억 정도, 도시지역에는 국영기업만도 1,500만명, 집단기업을 포함하면, 2,000만명~3,000만명정도 존재한다고 추계하고 있다.⁷⁾ 과잉고용노동력 문제가 표면화한 것은 1970년대 말기

7) 『北京周報』, 1988年 6月 28日號.

초보적이기는 하나 과잉고용노동력의 추계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鄧一鳴, “試問我國不同類型地區農村勞動力的剩餘與轉移,” 『農業經濟問題』, 1985年 第12期.

〈表 1〉 國家財政輸入에 있어서의 農業의 貢獻度
—「가치격차」*를 고려한 수정표—

| | | ① 農業 (元) | ② 財政 收入 (億元) | ③ ①/② (%) | ④ 農產物販賣時의 過少取得額 (億元) | ⑤ 工產品구입 時의過剩 支拂額 (億元) | ⑥ ①+④+⑤ (億元) | ⑦ ⑥이 當年の 財政收入에서 차지하는비율 (%) |
|-------|----|----------------|-----------------------|-----------------|-------------------------------|-----------------------------------|--------------------|--|
| 1952年 | 推A | 27.0 | 175.6 | 5.4 | 19.0 | 32.5 | 78.5 | 44.7 |
| | 定B | 27.0 | 175.6 | 5.4 | 26.3 | 44.8 | 98.1 | 55.9 |
| 1957年 | 推A | 29.3 | 310.2 | 9.4 | 89.3 | 66.0 | 184.6 | 59.5 |
| | 定B | 29.3 | 310.2 | 9.4 | 112.0 | 82.6 | 223.9 | 72.2 |
| 1977年 | 推A | 29.0 | 874.5 | 3.3 | 213.0 | 122.0 | 364.0 | 41.6 |
| | 定B | 29.0 | 874.5 | 3.3 | 288.2 | 165.2 | 482.4 | 55.2 |

資料：山本恒人，“中國型工業化(開發戰略)への 模索，”『中國工業化の歴史』，法津文化社，1982，p. 169.

註：*農產物 購入時의 過少取得額과 工產品 購入時의 過剩支拂額

文革期 때에 농촌에 下放되어 그 후 도시로 귀환한 도시청년을 近親者의 직장
에 취업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였다.

2. 蓄積 메카니즘의 마비

종래 중국의 경제건설에는 협상가격차에 의한 농업부분에서 공업부분으로의
가치이전과 도시노동자의 상대적인 저임금-저소비-고저축의 2개가 주요한
축적 메카니즘으로써 기능해 왔다. 물론, 이러한 축적메카니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저농산물 가격이다.

먼저 협상가격차에 의한 농업부분에서 공업부분으로의 가치이전을 볼 것 같
으면, 국가 재정 수입에 있어서 농업의 공헌도를 농민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
(농업세)만으로 추정하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비중에 비교해 극
히 적다. 그러나 국가 재정수입에 있어서의 농업의 공헌도는 이것만이 아니
다. 즉, 협상가격차를 고려한 농민의 對 국가제공액(농업세+농산물판매에 있
어서 본래의 농산물 가치보다 적게 얻는 액+공업제품(생산재, 소비재)구입에

② 蔡 龍，“試問離土赤離鄉，”『農業經濟問題』，1985年 第7期.

③ 侯勝利，“解決農業余剩勞動力的重要途徑，”『農業經濟』，中國人民大學報館，1986
年 第2期.

④ 白南生，徐寬，趙明宇，““雙包到戶”的 勞動力和資金變動趨勢，”中國農村發展問題
研究組織編『農村，經濟，社會(第1卷)』所收，知識出版社，1985年.

〈表 2〉 勞働者, 職員 平均賃金

| | 單位 | 1952年 | 1957年 | 1965年 | | 1978年 | |
|-------------------------|----|--------|--------|--------|-----------|--------|-----------|
| | | | | 實 數 | 1957年=100 | 實 數 | 1957年=100 |
| 年末社會勞働者數 | 萬人 | 20,729 | 23,771 | 28,670 | 120.6 | 39,856 | 167.7 |
| 全人民所有制單位 勞働者, 職員數 | 萬人 | 1,580 | 2,451 | 3,738 | 152.5 | 7,451 | 304.0 |
| 全人民所有制單位 勞働者, 職員平均賃金 | 元 | 446 | 637 | 635 | 102.4 | 644 | 101.1 |

資料：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81年版.

〈表 3〉 農業勞働者 1人當 穀物 生産量

(單位: kg)

| 年度 | 1952 | 1957 | 1962 | 1965 | 1970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
| 生産量 | 947 | 1,010 | 752 | 831 | 863 | 966 | 972 | 963 | 1,036 | 1,129 | 1,061 | 1,139 |

資料：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85年版.

있어서 농민이 본래의 공업제품 가치보다 많이 지불하는 액)이 국가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것 같으면, 1952년에 44.7%~55.9%, 1957년에 59.5%~72.2%, 1977년에 41.6%~55.2%이다. 가령 1977년에 있어서의 협상가격차 추정결과와 최소치(推定A)를 취하면, 그 당시 농민의 제공총액은 364억원이 된다. 이것은 그 해의 기본 건설 총투자액 433억원의 8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다음은 저농산물 가격 - 저임금 - 저소비 - 고저축의 '합리적인 저임금제'인데, 중국은 '합리적 저임금제'를 지탱하기 위해, 1953년 '統一購入・統一收入'정책을 도입하고, 그로 인해 식량, 油料작물, 면화시장은 성립하지않게 되었고, 가격은 완전히 국가통제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의 조달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또한 비농업부분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농민·도시노동자 양측을 희생시키면서 의지되어 온 이러한 축적 메카니즘은 원래 같으면 저임금 - 축적자금확대 - 재투자 - 생산량증가 - 축적자금확대가 소비수준증가로 한발한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노동자의 임금은 停滯 혹은 저하했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농업생산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表 3〉은 농업노동력 1인당의 곡물생산량인데, 195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1년후의 1978년이었고

계속해서 1952년 수준을 맴돌고 있다. 농업생산은 정체하고 농민, 노동자는 피폐하게 되었다.

당시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홍콩의 중국계 잡지 『七十年代』는 “수십년간, 인민의 임금은 증가되지 않고, 역으로 물자의 궁핍으로 인하여 물가는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민들의 가계의 부담을 늘어나게 되었고, 생활수준은 1957년보다 떨어졌다. 인민들은 긴 세월동안 궁핍한 생활에 참아왔지만 이제 그 인내도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⁸⁾고 전하고 있다.

胡喬木은 “농업의 상황은 심각하다. 77년의 전국 1인당 식량은 55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식량생산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와 공업 등에 사용되는 식량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⁹⁾ 라고 인정했다. 특히 농업개발이 뒤떨어진 지방의 농민의 식생활은 더욱 비참했다고 전해졌다. “문혁의 10년간, 농업에 대한 파괴도 극히 심각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억의 농민(농민의 총수는 약 8억)의 식량이 연간 150kg, 즉 반 기아상태에 처해있다. 과거의 전쟁시대에도 중국의 陝西省 남부의 농가에는 약간의 보존용 식량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톨도 없다.”¹⁰⁾

1970년대말, 중국이 국민경제의 재건을 도모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농산물 구매가격의 대폭인상, 도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도 위에서 설명한 당시의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협상가격차·합리적저임금제’가 축적메카니즘으로서 종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IV. 經濟運營의 停滯를 誘發한 要因

경제의 정체를 초래한 요인은 여러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주요한 것으로서는 다음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人民公社의 所有制, 分配制의 問題로 인한 農民의 勤勞意慾 喪失

農村人民公社에 있어서의 소유제는 성립이후 여러차례의 조정을 거쳐 최종

8) 『七十年代』, 1979. 3.

9) 『人民日報』, 1978. 10. 6.

10) 『爭鳴』, 1979. 5.

적으로는 생산대를 기본 核産單位로 하는 3級所有制¹¹⁾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人民公社의 분배제는 ‘半賃金制, 半供給制’¹²⁾였다. 그런데 ‘3級所有制’, ‘半賃金制, 半供給制’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집단주의를 전제로 한 소유제, 분배제였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직접 개인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농민의 근로의욕을 얼마나 상실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의 예가 잘 말해주고 있다.

“백성들은 人民公社員이 된 후부터 이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직접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¹³⁾

“역시 人民公社가 되고부터 백성들은 이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人民公社의 협동경작지의 작물은 손이 안 가고 비료도 적고, 물도 부족하고, ... 의 이유로 말라 비틀어진 작물이 많은 반면에 자기집 주변의 自留地의 작물은 열심히 손을 보면서 재배한 탓인지 모두가 싱싱하다. 닭도 마찬가지다. 人民公社의 닭은 허약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육한 닭은 포동포동 살이찌서 마당을 누비고 있다.”¹⁴⁾

“흉작이 아니다. 우리 마을일대는 보리가 대풍작이었다. 그러나 수확과 운반을 못해서 전부 논에서 썩고 있다. 야채도 마찬가지다. 人民公社의 작물이라 하면 무언가 자기와는 관계없는, 다른사람의 일인 것같은 기분이 들어 작물이 썩어내 버리는 상태가 되어도 무신경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적당히 하고 만다.”¹⁵⁾

11) 『北京周報』, 1963年 第15號 참조

토지, 役畜, 농기구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생산대에 소속되고 생산대에 의해 관리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생산대대, 공사에 소속되고, 생산대대, 공사에 의해 관리사용된다.

12) 공사관리위원회, 생산대대, 생산대, 각각의 경제핵산단위의 소득총액에서 축적부분(①농업세, 상공諸稅의 납부, 이윤의 상납, 국가에 대한 그 외 諸稅의 수행 ②생산비, 관리비의 상각,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기금과 복리, 후생 등 비생산부분에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비기금이 된다. 소비기금이 소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생산대의 생산수준,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5%~70% 수준이다. 이 소비기금은 ‘노동에 의한 분배’라는 사회주의의 분배원칙에 의해 임금제와 공급제를 결합한 분배제에 의해 분배된다. 이 두부분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임금제 70%, 공급제 30%이다. 그리고 임금제 부분은 기본임금부분과 장려금부분으로 2분되는데, 기본임금은 대중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각급 관리조직이 결정한다. 그리고 장려금 부분은 공사, 대대, 소대의 3부분으로 분리되어, 개인, 집단 각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계획의 완성정도에 따라서 10일제에 소평가를, 1개월제에 대평가를 실시하고 기본임금과 같이 지급된다.

13) 山本市郎, 『北京三十五年』, 岩波新書, 1980, pp. 50~52.

14) 前掲書.

15) 前掲書.

이상의 예에서도 당시의 人民公社의 소유제, 분배제가 얼마나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켰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중국이 1978년 이후 실시한 경제개혁, 개방정책의 첫 단계로서 농촌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2. 높은 人口 增加率

新中國 성립 이전에 있어서의 중국의 人口動態는 고출생율, 고사망율, 저증가율의 형태였는데, 新中國이 성립된 이후에는 고출생율, 저사망율, 고증가율로 바뀌었다. 1949년 이후의 중국의 인구정책을 보게 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 1953년~57년 기간 중 출생율은 3%이었는데, 사망율은 1952년에 이미 1.7%였고, 그 이후 계속 하락해 1957년에는 1.08%로 떨어졌다. 1960년대부터 출생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文革으로 인한 혼란은 산아제한정책을 무시하게 되었고, 60년대부터 70년대초에 걸쳐서 베이비붐이 발생했다.

인구증가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70년대 전반부터 산아제한과 晩婚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인구폭발론' 혹은 '자원고갈론'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산아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산아제한은 '한 명 농기'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급격한 인구증가는 중국경제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는가?

경제에 있어서 인간은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다. 이 둘의 형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형태로 나타난다. 현재의 중국에서의 인구증가는 負(-)의 효과가 더 크다. 자본 즉 생산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있는 데 비해서 증가한 인구는 확실히 소비자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가한 인구가 생산자보다도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편이 크게 되면 임금이 이전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인구증가분만큼 분배분은 증가하게 되고 축척분은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제한받게 된다. 고출산 인구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궁핍한 생활에 인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다.

3. 重工業優先의 投資政策

종래에 있어서의 중국의 투자정책을 보면 자본재 부분우선의 투자배분이었다. <表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발전 第1次 5個年 計劃 時부

〈表 4〉 中國 工業의 成長과 構造

(單位：%)

| 時 期 區 分\ | | 1953~57年 | 1958~62年 | 1963~65年 | 1966~70年 | 1971~75年 | 1976~80年 |
|-----------------------|-----|----------|----------|----------|----------|----------|----------|
| I. 平均成長率 | | | | | | | |
| 工 農總 業生 產 | 農 業 | 4.5 | -4.4 | 11.1 | 2.9 | 3.4 | 3.2 |
| | 工 業 | 18.0 | 3.8 | 17.9 | 12.0 | 9.3 | 9.6 |
| | 重工業 | 25.4 | 6.6 | 14.9 | 15.0 | 10.3 | 8.2 |
| | 輕工業 | 12.9 | 1.1 | 21.2 | 8.7 | 7.9 | 11.5 |
| 國民所得 | | 8.9 | -3.1 | 14.7 | 8.3 | 5.5 | 6.1 |
| II. 投資配分率 | | | | | | | |
| | 農 業 | 7.1 | 11.3 | 17.6 | 10.7 | 9.8 | 10.5 |
| | 工 業 | 42.6 | 60.4 | 49.8 | 55.5 | 55.4 | 52.6 |
| | 輕工業 | 6.4 | 6.4 | 3.9 | 4.4 | 5.8 | 6.7 |
| | 重工業 | 36.2 | 54.0 | 45.9 | 51.1 | 49.6 | 45.9 |
| | 其他 | 50.3 | 28.3 | 32.6 | 33.8 | 34.8 | 36.9 |
| III. 農業과 工業의 總生産額의 構成 | | | 1952年 | 1957年 | 1965年 | 1975年 | 1979年 |
| | 農業 | | 56.9 | 43.3 | 37.3 | 28.2 | 26.6 |
| | 工業 | | 43.1 | 56.7 | 62.7 | 71.8 | 73.4 |
| | 輕工業 | | 27.8 | 31.2 | 32.3 | 31.6 | 32.1 |
| | 重工業 | | 15.3 | 25.5 | 30.4 | 40.2 | 41.3 |

資料：國家統計局編，『中國統計年鑑 1990』，中國統計出版社，1990.

터 이미 중공업이 중시되었고 ‘大躍進’, ‘文化大革命’ 때에는 중공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일층 가중되었다. 1952년의 예산통계를 보면 농업부문의 비중이 59%, 중공업부문이 14%, 경공업부문 27%였는데 1979년에는 중공업부문이 42%를 차지하고 경공업 32%, 농업 26%로 중공업일변도로 바뀌었다.

예산의 편파적인 배분 이외에 가격면에 있어서도 工業重視策이 취해졌다. 즉 공업제품, 농업기계, 비료, 살충제 등의 농업투입재의 가격이 높이 유지되고 농산물가격은 낮게 책정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약 30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중공업우선 정책은 소위 ‘重工業化症候群’을 초래하게 되었다. 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는 중공업 그리고 관련산업상호간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즉 제철, 석유화학, 비철금속, 중기계,

그리고 화학공업은 鐵路, 전력, 광산 등의 관련산업과는 財를 상호교환하지만 전통적 기술에 의한 농업, 농촌공업, 중소기업과는 거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⁶⁾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해 행해진 높은 축적율,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인민의 노력은 결국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라는 투자정책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가 인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지 못한 것이다.

4. 企業管理體制의 問題

경제정체를 유발한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기업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종래에 있어서의 기업관리체제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로 상급관할기관의 명령에 따른다. 행정기관은 기업에 '指令性投入產出指標'¹⁷⁾를 하달한다.

2) 소득분배에 있어서, 기업은 국가의 '大鍋飯'을 직원은 기업의 '大鍋飯'을 먹는 제도로 되어 있다. 즉 투자자금의 공급은 전부 재정자금교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환의무, 이자부담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가능한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여유있는 경영을 할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잠정적인 경제 이익이 줄어들든지, '負(-)'가 되어도 다투어 투자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고정 자산과 생산이 증대하게 되면 직원노동자들의 복지를 확충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의 위신과 權力高揚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⁸⁾

3) 행정기관과 기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주로 하면서 부분, 지방, 기업은 모두 자기완결적인 체계('大而全, 小而全')를 추구하면서 분할된, 폐쇄적인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다.

16) Oshima, H. T., *Economic Growth in Monsoon: A Comparative Survey*, University of Tokyo, 1987.

17)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12개의 指令性指標가 있었다. ㉠ 총생산량 ㉡ 주요생산물생산량 ㉢ 신제품의 시험적 생산 ㉣ 주요기술 ㉤ 원가감소율 ㉥ 원가감소액 ㉦ 직원노동자 총수 ㉧ 年末 노동자수 ㉨ 임금총액 ㉩ 평균임금 ㉪ 노동생산성 ㉫ 이윤, 이것이다. 대약진기에는 4개(㉠ 주요생산물 생산량 ㉡ 직원노동자 총수 ㉢ 임금총액 ㉣ 이윤)의 지령성지표가 있었고, 나머지 8개는 기업층의 판단에 맡겼다. 최근에는 생산량, 품질, 이윤, 생산품목, 원재료, 연료, 노동력 소모량, 노동생산성, 비용, 유통자금 사용량의 8개 지표 가운데 생산량, 품질, 이윤, 생산비용 등 4개만이 지령성지표이고, 나머지는 기업층 판단에 맡긴다.

1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9 Aug. 1985.

이와 같은 기업관리로 기업과 사회의 분업관계는 발전하지 않게 되고, 상품유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 생산, 판매 사이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투자를 반복하는 악순환메카니즘이 형성되었다.

기업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停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저개발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농촌·도시 두 部門경제발전 모델’에 의거하여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제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하 본고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에 있어서의 고축적 메카니즘이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면 그 過程은 먼저 농촌 人民公社의 소유제도, 분배제도의 문제에 의하여 농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그 결과로서 농업생산은 정체되었다. 그리고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총생산물 가운데 차지하는 총소비분은 끊임없이 증가했다. 인민의 저소비의 결과인 축적분은 그 투자효과가 중공업, 기업관리체제 등의 문제로 인해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와 더불어 文革 이후 농촌에 下放된 도시청년들이 도시로 귀환하면서 그들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정책의 운영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반영으로써 중국은 축적메카니즘의 발단인 농촌의 경제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축적원으로서의 외국자본의 도입정책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